

“오직 눈 건강을 위한 한 길” 한길의료재단 한길안과병원

한길안과병원은 1985년 인천 부평의 조그마한 안과의원으로 시작, 도전과 발전을 거듭해 현재 안과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안과전문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연간 21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백내장 수술 5,000건 이상, 망막 수술 1,000건 이상을 시행하는 만큼 규모, 시설, 의료진, 임상능력, 학술, 연구 분야 등에서 안과전문병원으로서 최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정규형 이사장.

보건복지부가 공인한 명품 안과전문병원

인천 유일 안과전문병원이자 보건복지부가 인증·지정하는 3가지 제도(의료기관 인증, 전문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를 모두 통과한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2011년 중소병원급 최초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취득,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천 지역에서 유일하게 ‘안과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음으로써 최정상급 의료 기술과 진료 인프라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2017년 8월에는 병원급 최초이자 유일하게 제1차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뿐만 아니라 전국 안과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 기반 강화사업’에 선정돼 인천시,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돼 임상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후 자체적인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설치해 꾸준히 임상연구를 하고 있으며 인간대상연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추가 지정받아 연구 영역을 넓혔다. 2016년 2월부터는 안과병원 최초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1등급 획득,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역시 한길안과병원의 높은 진료 수준을 증명한다.

중복 안질환, 한 곳에서 진료 One-Stop Total Care

여러 개의 안질환(중복질환)은 물론 모든 안질환에 대한 원스톱 당일 진료가 가능하다. 안과 세부분야를 전공한 전문의가 상주, 6개 전문센터와 1개 전문클리닉이 상시 진료하는 One-day 진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덕분이다.

대학병원 교수 출신을 주축으로 한 의료진 31명(안과전문의 24명, 내과전문의 3명,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1명, 전공의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망막과 녹내장 분야는 인천 지역 내 대학병원보다 많은 전문의가 포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과와 마취통증의학과가 개설되어 있어 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술 받을 수 있다. 연간 1만 건이 넘는 수술을 시행하고 있고 인천 전체 망막 수술의 약 56%를 담당하며 지역 내에서 확실한 중심 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6개 전문센터: 전안부, 녹내장, 망막, 성형안과, 소아사시·약시·신경안과, 라식

* 1개 전문클리닉: 안구건조



▲ 망막 수술.



▲ 라식센터 수술.

외국인환자도 믿고 찾는 병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환자 관련 지정 제도 2가지(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를 모두 통과한 유일한 안과전문병원이다. 우수한 진료·수술 실력과 더불어 국제 수준에 걸맞은 진료체계를 갖추었음을 검증받은 것이다.

특히 자국에서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안과 분야에서 고난도로 꼽히는 망막 수술의 경우, 자국에서 시력을 전혀 회복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한길안과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한다. 또한 적정진료에 대한 신뢰가 높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시술이나 수술을 권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평판이 자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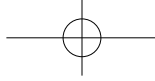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환자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영어·러시아어에 능통한 코디네이터가 '입국 전부터 출국 후까지' 1대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가 현지 의료기관에서 받았던 진료에 관한 자료(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를 받은 다음, 해당 분야 의료진과 진료 가능성에

대해 상담, 논의하고 결과를 메일로 답변한다. 진료일정을 확정해 입국하면 공항으로 직접 마주하는 것은 물론, 협력관계를 맺은 지역 호텔과 연계하여 환자가 진료 및 수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귀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환자의 진료, 수술 후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한다.

함께하는 병원

‘의료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핵심가치에 걸맞게 사회공헌사업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02년 2월부터 우즈베키스탄에 8차례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무료 안과진료와 수술을 지원했다. 2003년 6월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에 자선병원인 ‘한길우즈베크안과병원’을 설립했다. 매년 지원금을 보내는 동시에 한길우즈베크안과병원에서 근무하는 안과 의사를 초청해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공헌사업도 꾸준히 수행 중이다. 2007년부터 인천의 대표적 기업인 한국지엠이 운영하는 한국지엠마음재단과 공동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의 수술비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인천을 연고로 하는 SK와이번스 프로 야구단



의 이재원 선수와 ‘행복한 EYE 캠페인’을 펼쳐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의 안과 수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길재단 장학 사업, 로비음악회, 강당 연중 무상대관, 미추홀오페라단 후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며 지역과 공생하고자 노력 중이다.

한길안과병원이 꿈꾸는 미래

한길안과병원은 ‘고객인 환자와 병원의 주체인 직원 모두가 행복한 병원’을 꿈꾼다. 이를 위해 ‘실력 있는 강소병원’, ‘봉사하는 인술병원’, ‘직원이 행복한 병원’을 핵심과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쉽 없이 담금질을 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실력과 서비스 향상 등 내적 성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앞으로는 병원규모 확대와 제2병원 건립 등 외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한길안과병원이 추구하는 ‘강소병원’이란 ‘규모는 대학병원만큼 크지 않더라도 임상과 연구, 서비스 등에서 다른 병원을 압도하는 병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울러 병원의 지속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어야만 ‘봉사’와 ‘직원 복지’라는 핵심과제에 꾸준히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병원 발전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매년 수정 보완하며 병원의 비전과 핵심과제 실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2. 우주베키스탄 타슈켄트시에 설립한 한길우즈베크안과병원 3. 외국인환자 안과 검사 사진 4. 우주베키스탄 의료진 초청

